

PROGRAM



Gradation

Flute 조성현

J.S.Bach Partita in a minor, BWV 1013 for Flute solo

L.Berio Sequenza I for Flute solo

C.Debussy Syrinx for Flute solo

E.Bozza Image for Flute solo

C.Nielsen The Children are Playing for Flute solo

C.P.E.Bach Sonata in a minor for Flute solo

S.Karg-Elert Sonata “Appassionata” Op. 140 for Flute solo

PROGRAM NOTE



J.S.Bach ✦ Partita in a minor, BWV 1013 for Flute solo

파르티타는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독주 악기 곡을 가리키는 제목으로, 바로크 시대 용어가 그러하듯 파르티타 역시 그 형식과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각각의 건반악기, 바이올린을 위한 독주 파르티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의 다른 파르티타와 마찬가지로 이 곡도 춤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개의 춤곡형식 알르망드 Allemande - 코렌테 Corrente - 사라방드 Sarabande - 부레 앙글레즈 Bourrée anglaise 로 작곡된 모음곡이다. 지금은 플루트 레퍼토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제바스티안 바흐의 유일한 독주곡이지만, 1917년 첫 출판되기 전까지 이 작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작곡 시기나 배경 등의 정보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바흐가 독일 쾨텐 Köthen 에서 궁정악장으로 활동했던 1717-1723년 사이에 작곡한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 1001-1006, 그리고 <첼로 독주를 위한 모음곡> BWV 1007-1012 와 작품이 비슷한 것, 또한 당시 드레스덴을 방문한 바흐가 프랑스 관악연주자 피에르 가브리엘 부파르댕 Pierre Gabriel Buffardin (1693-1768) 을 만나 트라베르소 (Traverso, 바로크 시대의 플루트) 를 보다 가까이 접한 이후 <브란덴부르크협주곡> 5번 BWV 1050 과 <관현악조곡> 2번 BWV 1067 을 작곡한 것으로 보아 이 파르티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작곡했을 것으로 보인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은 퍼즐과 같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선율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 배어있는 화성과, 엄밀히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성부로 역할이 나뉜 부분, 좀처럼 끊이지 않는 긴 음악적 흐름 속에서 당최 어느 부분에서 숨을 쉬는 것이 합당한지 파악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한데,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이 파르티타에 숨겨진 퍼즐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감탄스레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L.Berio ✦ Sequenza I for Flute solo

이탈리아의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는 1958년 플루트를 위한 첫 번째 세쿠엔차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총 열네편 구성의 독주곡 시리즈를 작곡했다. 영어로는 시퀀스 Sequence 를 뜻하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각 곡은 일련의 음악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각 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소위 말해 ‘현대음악기법’ 을 실험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첫 번째 세쿠엔차는 전체 곡의 중심이 되는 화성을 기반으로 선율을 노래하는 플루트가 그 과정 중에 파생되는 새롭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집중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베리오는 “오늘 날의 작곡가가 단선율 악기의 독주곡을 쓰려면 단순한 하나의 선율에서부터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감출 것인지, 대위법적인 진행과 다양한 음색을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재건해야 하는데, 이 점은 음악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발상의 원천이 되는 중심적인 부분” 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음을 소리내는 플루트가 은연중에 다성 음악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잠재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는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법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플루티스트 세베리노 가첼로니 Severino Gazzelloni 초연 이후 연주자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1992년에 개정된 이 곡은 처음 접하는 관객들이 이처럼 쉽지 않은 설명 만큼이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이 음악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플루티스트가 다루는 모든 소리와 작은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적인 흐름과 울림을 받아들인다면 베리오를 비롯한 이 시대의 작곡가들이 바라는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법’ 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PROGRAM NOTE



C. Debussy ✦ Syrinx for Flute solo

클로드 드뷔시는 악기 플루트의 매력을 어느 누구보다 잘 다루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로, 대표적인 작품에는 <시링크스>와 <플루트, 비올라와 하프를 위한 소나타>, 그리고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이 있다. 여기서 목신(牧神)이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가졌으며, 숲과 들판에서 목축을 맡아보는 신으로 그리스신화에서는 판Pan, 로마신화에서는 파우누스Faunus 로 불린다. 춤과 음악을 즐기고,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판은 어느날 시링크스Syrinx 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여 그녀를 유혹한다. 아름다운 시링크스는 순결을 상징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숲의 정령이었는데, 판의 구애를 무시하고 그에게서 도망친다.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판을 뒤로하고 강을 건너지못해 다급해진 시링크스. 그녀는 물의 정령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판에게 잡히려는 찰나, 그 모습이 갈대로 변해버렸다. 판이 아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자 갈대는 바람과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는데, 그 감미로운 음색에 빠진 그가 갈대줄기를 자르고 엮어 피리를 만든 것이 악기 팬파이프Panpipe의 유래가 되었다. 1913년 드뷔시가 이 곡을 처음 작곡 했을때의 제목은 <판의 피리>Flûte de Pan 로, 그의 친구 가브리엘 무레의 극 <프시케>Psyché 에 쓰인 부수음악이었지만, 현재 이 곡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걸로 보아, 어쩌다보니 드뷔시의 음악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출판 당시에는 그가 쓴 동명의 가곡La flûte de Pan, 1897 과 구분하기위해서인지, 제목이 신화 속 배경을 담은 <시링크스> 로 바뀌었고, 현재 이 곡은 요한 제바스티안과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독주곡 이후로 가장 중요시 다뤄지는 레퍼토리가 되었다. 한편, 신화에 등장하는 판은 변덕스러운 성격에다가 화를 잘 내고, 공포심으로 상대방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공황 공포라는 뜻의 패닉Panic 이 유래되어 드뷔시의 목신과 관련된 작품을 들을 때에는 플루트의 아름다운 음색 뿐만아니라, 머리의 뒷부분이 조여오는듯한 공포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곤 한다.

E. Bozza ✦ Image for Flute solo

실내악 작품, 특히 관악기를 위한 곡들로 잘 알려져있는 프랑스 작곡가 외젠 보짜는 만능 음악가였다.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으로 파리음악원을 졸업한 뒤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동하다가 지휘자가 되기 위해 다시 음악원에 돌아오며 지휘 부분에서도 수상하면서 지휘자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음악원에 돌아왔고, 역시나 뛰어난 음악성으로 로마대상을 거머쥔 그는 상의 일환으로 로마의 빌라 메디치에서 몇년간 지내며 1939년에 이 곡이 작곡되었다. 앞서 연주된 선배 작곡가들의 플루트 독주곡이 들리는듯, 여러가지 기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악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작곡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다.

PROGRAM NOTE



C.Nielsen ✦ The Children are Playing for Flute solo

덴마크의 국민 작곡가 카를 아우구스트 닐센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작곡을 시작했다. 코펜하겐 왕립 음악원에서도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에는 코펜하겐 왕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작품을 만들었다. 그 시절, 닐센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혹은 바그너처럼 동시대를 주름잡던 후기 낭만파 작곡가보다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이나 브람스 같은 고전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초창기 작품은 신고전주의 느낌이 강한데,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다양한 조성과 음색을 탐구하고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1921년 덴마크 왕립극장에서 초연된 이 곡은 덴마크의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헬게 로데의 애국 연극 ‘어머니’에 붙여진 부수음악, 작품번호 41번의 일부분이다.

C.P.E.Bach ✦ Sonata in a minor for Flute solo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차남,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는 활동할 당시 아버지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었다. 이 소나타는 1747년 베를린에서 작곡되었으며, 아버지의 파르티타에 영향을 받은듯 플루트 독주곡으로 쓰여져 두 작품이 함께 플루티스트들의 중요한 바로크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플루티스트 부파르맹이 제바스티안의 곁에서 음악적 영감을 준 것처럼, 엠마누엘의 곁에서는 플루티스트이자 독일의 작곡가 요한 요아힘 크반츠 (1697 -1773) 가 영향을 주었다. 부파르맹을 사사한 크반츠는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음악가들이 모여있던 베를린 궁정악단에서 엠마누엘과 함께 활동했으며, 프리드리히 2세에게 플루트를 가르쳤다. 이 시기에 탄생한 대부분의 플루트 작품은 플루트를 즐겨 연주하던 국왕을 위해 작곡되었는데, 엠마누엘 역시 그를 위해 이 곡을 작곡한 것으로 추정된다. 까다로운 테크닉은 물론이고, 멜로디 속에 내포된 화성의 퍼즐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심포나 악상 등의 장치를 통해 감정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이 독주 소나타는 복잡하게 얽힌 반응계적 화성이 서로 겹쳐있는 부분이나, 짧은 정적 동안 바뀌는 음색 등 당시 바로크 이후,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에 엠마누엘이 추구하던 질풍노도와 갈랑트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S.Karg-Elert ✦ Sonata “Appassionata” Op. 140 for Flute solo

지그프리트 카르그-엘레르트는 독일 작곡가로 오르간과 관악기를 위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당시 쇤베르크와 베베른과 함께 활동했지만 후기 낭만주의 음악적 성향을 띄면서 에드바르트 그리그, 클로드 드뷔시, 알렉산더 스크리야빈 등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전적 성향의 작곡가였다. 이 소나타는 짧은 단악장으로 고전을 중요시하던 그가 나아갈 수 있던 가장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담겨있다. 악보에 적힌 나타냄 말은 ‘강렬하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매우 격정적으로’, ‘각성하듯이’ 등 감정을 방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폭넓은 음색을 바꾸며 표현해야하는, 제목 그대로 아주 열정적인 작품이다.